

#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 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문정(대구대학교 박사)

## 〈요 약〉

본 연구는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장벽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전국의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18-34세 청각장애청년 222명으로 진로장벽,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분석결과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의 효과를 미쳤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의사결정에 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의 경로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각장애청년들의 진로상담을 위한 주요한 시사점은 청각장애청년이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에 대해 파악하고 감소시키고 노력해주는 집단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 심리 상담을 병행하여 청각장애청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주제어> 청각장애청년, 진로장벽, 진로의사결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

## 1.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평생 직장개념이 사라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급변하는 전환기에 있는 현대사회에서 진로의 선택과 결정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현재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취업전망 등의 이유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선중, 2005; 김중운·박성실, 2012).

\* 본 논문은 주저자의 학위논문의 일부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변수를 새롭게 구성하였음.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1995년부터 시행되면서, 대학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수준은 높아졌으나, 비장애청년 보다 높은 실업률<sup>1)</sup>은 고학력 장애청년조차도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그동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에 의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취업 인프라, 사회안전망 등 꾸준한 청년실업대책을 추진하면서도(남진열, 2010) 장애청년의 특수성이나 특성은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면 장애청년의 진로개발과 설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마련된 것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많은 장애청년들이 사회·환경적인 요인과 장애로 인해 진로에 대한 장벽을 높게 느끼고 있으며, 동시에 자아존중감은 대체로 낮기 때문에 자아결정력에 대한 훈련이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정영혜·강희순·김정숙, 2012; 이문정, 2013). 이 중에서 청력손실로 인하여 건청인과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불리의 여파는 가시적인 장애를 지닌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권순우·김병하, 2004; 박민지, 2010; 이진숙·최은영·문장원, 2012).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2011)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 추정수는 2,693,477명이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18~34세 장애인은 312,914명, 이 중 청각장애 청년은 28,751명이다. 특히 이들은 대학교라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많이 부각되는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이혜숙, 2010). 농인과 청인의 이중문화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김경진, 2004). 게다가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타인의 경험을 수용하는 경험부족으로(이규식·석동일, 1997) 장애인 중에서 의사소통에 상당한 오해와 갈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장애 특성상 청각장애인은 비장애인으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늘 조용히 있으므로 주목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낮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어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장명희·유동철, 2008; 엄미선·김진희, 2010). 이러한 현상은 청각장애청년이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로의사결정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고등교육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청각장애청년이 스스로 당면한 사회·경제적인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진로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로와 관련된 태도나 진로의사결정은 자신의 심리적인 특성과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이정애·최용용, 2010)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내는 것은 중요하다.

많은 유사 선행연구들도 성공적인 진로의사결정의 선결요건들인 개인 내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로 출발하고 있다. 더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경우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진로장벽(김은영, 2001; 손은령, 2001; 김영경, 2008; 박미경·김영숙·이현림, 2008; 박성실, 2012; 이문정, 2013; Lent, Brown, and Hackett, 2002; Gushue, 2006)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년 3/4분기 통계에 따르면, 3,336명의 장애인 대졸 구직자 중에 27%인 913명만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1). 반면에 같은 시기 대졸구직자 559,000명 중 취업자(건강보험DB취업자)는 58.6%인 327,574명으로(한국교육개발원, 2011) 장애인 대졸 구직자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은경·이혜성, 2002; 정진선, 2002; 이견미, 2008; 이윤경; 2010, 박성실, 2012; 이문정, 2013; Hackett and Betz, 1981; Nauta and Kahn, 2007; Tracey, 2010; Tylor and Betz, 1983) 등은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E)의 결여는 사람들의 진로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로 손꼽히고 있으며,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진로방향을 정하거나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Nauta and Kahn, 2007). Bandura(1997)는 청년기까지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가에 따라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성취행동, 진로결정 그리고 진로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된다고 하였다. Lent 등(2002)은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을 통해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특별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진로결정과 학업성취, 진로결정의사 및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의사결정 변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들의 긍정적인 진로의사결정의 최종목표는 안정적인 직업생활이자 지역사회 내에 완전히 통합되고 능동적으로 역량강화를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개인 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인 요인에 취약한 청각장애청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진로장벽이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볼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2. 연구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리하여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장벽이 진로의사결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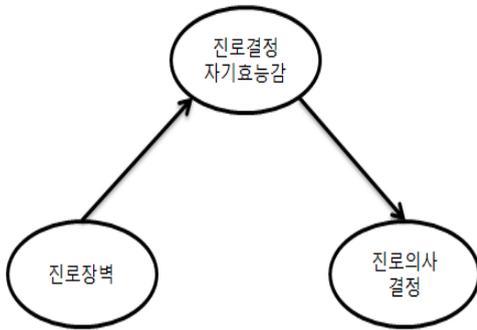
연구문제 1.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의사결정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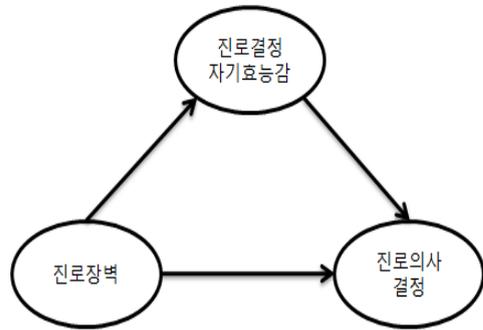
## 3.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 1은 완전매개모형으로 청각장애청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모형 2는 부분매개모형으로 청각장애청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추가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1(완전매개모형)



<그림 2> 연구모형 2(부분매개모형)

## 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4년제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한 18~34세 청각장애청년이다. 본 자료는 250명을 임의 표집하여 조사하였으며, 232부가 회수되어 92.8%의 회수율을 나타냈으며, 이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10부를 제외하고 총 22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전국의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청각장애대학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요청 전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요원 또는 조사대상자에게 본 설문에 대한 취지와 작성요청에 대해 설명한 뒤에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측정도구, 신뢰도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구분	변수명	측정도구설명	문항수	신뢰도
독립 변수	진로장벽	- 김은영(2001)이 개발한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를 수정하여 사용 - 대인관계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부족, 신체적 열등감의 총 5개의 하위요인 22 문항 5점 Likert 척도를 설문으로 사용 -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높음 의미	22	.818
매개 변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Taylor & Betz(1983)가 개발하고 이기학·이학주(2000)가 타당화 시킨 것을 수정하여 사용 -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총 5개 하위요인 22문항 5점 Likert 척도를 설문으로 사용(김민정 2006) -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 의미	22	.937
종속 변수	진로의사결정	- Osipow 등(1987)이 개발하고 고향자(1992)가 변안한 것을 사용	18	.934

구분	변수명	측정도구설명	문항수	신뢰도
		- 총 1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1, 2번 문항은 진로와 전공에 대한 확신수준을 나타내며, 3번부터 18번 문항은 교육과 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 - 5점 Likert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 4) 분석방법 및 자료점검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ASW Statistic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진로장벽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RMSEA, RMR, GFI, NFI, TLI, CFI<sup>2)</sup>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 II. 진로의사결정 영향요인간의 관계연구

진로의사결정(Career Decision Making: CDM)과정은 청년기의 발달과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시작되며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이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혹은 졸업 후에 구체적인 직업분야에 대한 선택 등을 뜻할 수 있다(김봉환·이제경·유현실·황매향·공윤정·손진희·강혜영·김지현·유정이·임은미·손은령, 2010; Nadya., Elizabeth, and Neeta, 2009). 그리고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행동들은 사회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진로발달은 자신이 가진 환경적 장벽과 사회적 지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Lent et al., 2002; Swanson and Gore, 2000).

자신의 직업이나 진로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외적 요인들(손은령, 2001)을 의미하는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은 취업, 진학, 승진 등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과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 사건이나 사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진로장벽이 진로포부나 진로의사결정 그리고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변인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김영경, 2008; 박미경 외 2008; 박정희·김홍석, 2009; 강원덕·안귀여루, 2010), 그 결과도 진로장벽이 진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희정·김금미(2010)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이 낮고 진로준비 행동 수준이 낮았다. Gushue(2006)는 128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직업정체감 및 직업탐색 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더 통합된 직업정체감을 갖는 것으로 주장하

2) 구조방정식 모형적합도 지수 기준참조 「X<sup>2</sup>/df: p>.05, RMSEA: 0.05이하 좋은 적합도, 0.05-0.08 적절함(수용 가능한) 적합도, 0.10 이하 보통, GFI·NFI·TLI·CFI: 0.9이상 좋은 적합도」 (홍세희, 2000; 배병렬, 2011; 황보옥, 2011; 박성실, 2012; 이문정, 2013)

였으며, 김은영(2001)은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바람직한 진로탐색을 방해하는 9가지 장애 요인을 제시하였다. 진로장벽은 주로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 SCCT)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함께 진로발달 모형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변인이며(김중운·박성실, 2012),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실, 2012; 이문정, 2013).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을 이해하려는 여러 가지 이론 중 하나인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은 개인 내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개인의 진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진로성취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 배경과 환경적 배경은 진로 관련 목표의 선택이나 실행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선택모형은 흥미발달과 함께 기본적으로 개인의 진로선택에 관련된 목표의 선택, 활동의 선택, 실행영역 및 성취를 설명한다(Lent et al., 2002).

진로 관련 목표의 선택이나 실행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입장을 보면, 개인이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직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며(Tracey, 2010), 진로에 대한 목표수립과 진로계획수립이 용이하게 되고(Rogers, Creed, and Glendon, 2008), 결과적으로 진로선택과정이 촉진된다(Lent et al., 2002).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행동에언력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 신념으로(조명실, 2006),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이다(Bandura, 1997). Hackett 와 Betz(1981)에 의하면 자기효능감 기대가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진로성취에 중요한 인지적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 과정과 진로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Tylor 와 Betz(1983)는 자기효능감을 진로의사결정 모델에 적용시켰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요구되는 과업에 자기효능감을 적용하여 진로결정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ullivan and Mahalik, 2000). 국내연구에서 살펴보면, 이현주(2007)는 대학생 대상의 진로결정 효능감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진로결정 효능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진로미결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식(2007)은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 사이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정미예(2007)는 대학생의 진로장애 지각은 진로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진로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영(2001)은 진로장벽과 관련된 변인을 진로 내·외 통제성, 특성불안,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보았고, 김선중(2005)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은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조사하였다. 이연미(2002), 이명숙(2003), 김선중(2005) 등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이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지혜(2007)는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 중에서 진로태도 성숙 수준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은 진로장벽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진로장벽이 장애청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진로장벽은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되며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의 세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결과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의 관계를 가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

하기 위해 세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으로 나누어 검증해보고자 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 사이를 완전매개 한다면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진로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고 부분매개를 한다면 자신의 진로장벽을 이해하는 것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세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진로장벽이 어떠한 경로로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면 청각장애청년들의 진로상담과 교육에서 자신의 진로장벽을 이해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줄 것이다.

<표 2>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연구자	종속변인	독립변인	매개변인
김은영(2001), 손은령(2001), 조지혜(2007), 김영경(2008), 박미경 등(2008), 강덕원·안귀여루(2010), 김중운·박성실(2012)	진로의사결정	진로장벽	-
김은영(2001), 손은령(2001), 이연미(2002), 김선중(2005), 김영경(2008), 이희정·김금미(2010), Gushue(200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이은경, 이혜성(2002), 정진선(2002), 이명숙(2003), 이건미(2008), 강승희(2010), 정영애 등(2012), Tylor&Betz(1983), Hackett&Betz(1981)	진로의사결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이기하·이학주(2000), 이연미(2002), 김선중(2005), 손은령·손진희(2005), 정미예(2007), 이성식(2007), 김영경(2008), 박성실(2012), 이문정(2013), Bandura(1997), Lent et al. (2002), Lindley(2005)	진로의사결정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III. 연구결과

####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명(42.3%), 여성이 128명(57.7%)으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19~24세가 126명(56.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29세가 79명(35.6%), 30~34세가 17명(7.7%)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은 1~3급이 208명(9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이하가 69명(13.1%)으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이하가 58명(26.2%)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하가 16명(7.2%)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대학전공계열은 사회대학이 58명(2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술대학이 36명(16.2%), 사범대학이 29명(13.1%), 공과대학 28명(12.6%), 생활대학 26명(11.7%)으로 나타났으며, 의과대학이 1명(5%)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현재 재학상태는 대학생이 119명(53.6%), 졸업생 100명(45.0%), 대학생원 3명(1.4%)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변수	측정항목	N(222)	%	변수	측정항목	N(222)	%
성별	남성	94	42.3	전공계열	공과대학	28	12.6
	여성	128	57.7		사범대학	29	13.1
연령	19-24세	126	56.8		사회대학	58	26.1
	25-29세	79	35.6		상과대학	10	4.5
	30-34세	17	7.7		생활대학	26	11.7
장애등급	1-3급	208	93.7		신학대학	3	1.4
	4-6급	14	6.3		예술대학	36	16.2
가족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6	7.2		의과대학	1	0.5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69	31.1		인문대학	5	2.3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58	26.1		자연대학	5	2.3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42	18.9	재활대학	15	6.8	
	400만원이상	37	16.7	행정대학	6	2.7	
				현재재학상태	대학생	119	53.6
					대학원생	3	1.4
					졸업생	100	45.0

## 2.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진로장벽 산술평균(M)은 2.76(SD=0.6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52(SD=0.60), 진로의사결정은 3.14(SD=0.66)로 모두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이운경(2010), 이문정(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장벽은 다른 변수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참여자 53.6%가 대학생임을 감안 할 때 현재까지는 사회로부터의 내·외적 장벽을 크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기 전 측정변수들에 대한 정규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인들의 왜도와 첨도<sup>3)</sup>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244-.549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638-.075으로 나타나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문항들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치

구분		평점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장벽	대인관계 어려움	2,95	0.86	.007	-.279
	경제적 어려움	3,10	0.77	-.062	.049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42	0.86	.195	-.638

3) 왜도와 첨도는 0에 가까울수록 정상분포를 이루며, 왜도는 절대 값이 3.0 이상일 경우, 첨도는 절대 값이 10.0 이상인 경우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 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구분		평점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장벽	직업정보부족	2.69	0.84	-.070	-.503
	신체열등감	2.65	0.87	-.017	-.399
	전체	2.76	0.64	-.201	-.27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보수집	3.36	0.76	-.047	-.058
	목표설정	3.65	0.63	.007	.014
	진로계획	3.47	0.77	-.086	-.218
	문제해결	3.61	0.70	-.244	-.039
	자기평가	3.71	0.61	.186	-.528
	전체	3.56	0.60	.120	-.214
진로의사결정		3.14	0.66	.549	.075

3. 진로의사결정요인 상관계수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분석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분석과정에서 이들 변수들은 회귀계수의 값을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sup>4)</sup> 을 실시하였다.

<표 4>와 같이 측정변수의 상관계수는 .80 이하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높지 않은 것으로 모두  $p < 0.5$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진로의사결정은 직업정보부족( $r = -.605$ )와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직업정보가 부족할수록 진로의사결정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목표설정은 진로의사결정과  $r = .396$ 으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목표설정을 잘 할수록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관측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독립	1	1									
	2	.426**	1								
	3	.490**	.393**	1							
	4	.499**	.467**	.557**	1						
	5	.499**	.454**	.501**	.442**	1					
매개	6	-.217**	.012	-.171*	-.237**	-.043	1				
	7	-.310**	-.129	-.372**	-.368**	-.207**	.520**	1			
	8	-.347**	-.090	-.283**	-.324**	-.142*	.693**	.662**	1		
	9	-.306**	-.109	-.230**	-.262**	-.201**	.599**	.682**	.734**	1	

4) 상관의 정도는 0에서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 즉, 변화의 강도는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높고, 변화의 방향은 +는 정(양)의 방향, -는 부(음)의 방향이라고 하며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80이상이면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송지준, 2010; 황보옥, 2011). 상관관계분석에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수준은 ±0.9이상 : 매우 높은 상관관계, ±0.7±0.9미만: 높은 상관관계, ±0.4-0.7미만: 다소 높은 상관관계, ±0.2±0.4미만: 낮은 상관관계, ±0.2미만: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송지준 2010).

관측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0	-.307**	-.076	-.345**	-.379**	-.217**	.585**	.739**	.711**	.715**	1	
종속	11	-.439**	-.477**	-.476**	-.605**	-.443**	.203**	.391**	.396**	.359**	.380**	1

\*p < .05, \*\*p < .01

1. 대인관계 어려움 2. 경제적 어려움 3. 타인과의 갈등 4. 직업정보부족 5. 신체열등감 6. 정보수집 7. 목표설정 8. 진로 계획 9. 문제해결 10. 자기평가 11. 진로의사결정

#### 4. 측정모형 분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측정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의 구조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표 5>와 같이  $\chi^2/df=127.194/62$ , RMSEA=0.069, RMR=0.034, GFI=0.918, NFI=0.924, TLI=0.949, CFI=.959로 나타나 모형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모형	$\chi^2(p)$	df	RMSEA	RMR	GFI	NFI	TLI	CFI
측정모형	127.194***	62	.069	.034	.918	.924	.949	.959

\*\*\*p < .001

<표 6>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구성 항목들에 대한 경로계수에 대한 유효성을 보여주고 있다.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하고 요인부하량의 유의성 판단을 위해 C.R.의 절대값이 1.96 이상이면 유의수준 0.05에서, 절대값이 2.56 이상이면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배병렬, 2011; 황보옥, 2011).

분석결과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이  $p < .001$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관측변인←잠재변인	$\beta$	B	S.E.	C.R.	P	SMC
독립	직업정보부족←진로장벽	0.769	1.000				0.592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진로장벽	0.710	0.945	0.093	10.120		0.505
	대인관계 어려움←진로장벽	0.677	0.908	0.094	9.630	***	0.458
	신체적 열등감←진로장벽	0.655	0.890	0.096	9.307	***	0.429
	경제적 어려움←진로장벽	0.613	0.734	0.085	8.682	***	0.376
매개	진로계획←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859	1.000				0.738
	자기평가←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855	0.794	0.049	16.099	***	0.730
	문제해결←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844	0.894	0.057	15.769	***	0.712
	목표설정←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809	0.803	0.055	14.722	***	0.654
	정보수집←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711	0.816	0.067	12.127	***	0.506

관측변인←잠재변인		$\beta$	B	S.E.	C.R.	P	SMC
종속	의사결정합2←진로의사결정	0.910	1.000				0.829
	의사결정합3←진로의사결정	0.808	0.828	0.056	14.826	***	0.653
	의사결정합1←진로의사결정	0.774	0.692	0.031	22.906	***	0.621

\*\*\*p < .001

### 5. 연구모형 1(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 1(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구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chi^2$ 값은 217.539(p < 0.001)로 나타났으며, GFI= .874, NFI= .870, TLI=.880, CFI=.903으로 수용기준(.90 이상)에서 대체적으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RMSEA는 .105(.05-.08), RMR은 .085(.05이하)로 전체적으로 부적합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7> 연구모형 1(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회귀계수(N=222)

모형	$\chi^2(p)$	df	RMSEA	RMR	GFI	NFI	TLI	CFI
연구모형 1	217.539 (p<0.001)	63	.105	.085	.874	.870	.880	.903
회귀계수	구 분			$\beta$	B	S.E	C.R	P
	진로장벽→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94	-.468	.084	-5.864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의사결정			.549	.491	.079	6.931	***

\*\*\*p < .001

### 6. 연구모형 2(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 2(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구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앞에서 분석한 연구모형1(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63, N=222)$  값은 217.539(p<0.001)이었으며, GFI= .874, NFI= .870, TLI=.880, CFI=.903, RMSEA= .105, RMR= .085로 부적합한 적합도를 보인 반면에, 연구모형 2인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hi^2(df=62, N=222)$  값은 127.194(p < 0.001)이었으며, GFI= .918, NFI= .924, TLI=.949, CFI=.959로 양호한 적합도(.90 이상)를 나타내고 있다. RMSEA는 .069(.05-.08), RMR은 .034(.05이하)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측정모형은 수집된 자료와 잘 부합됨을 알 수 있으며 연구모형 2(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훨씬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8> 연구모형 2(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회귀계수(N=222)

모형	$\chi^2(p)$	df	RMSEA	RMR	GFI	NFI	TLI	CFI
연구모형 2	127.194 (p < 0.001)	62	.069	.034	.918	.924	.949	.959
회귀계수	구 분			$\beta$	B	S.E	C.R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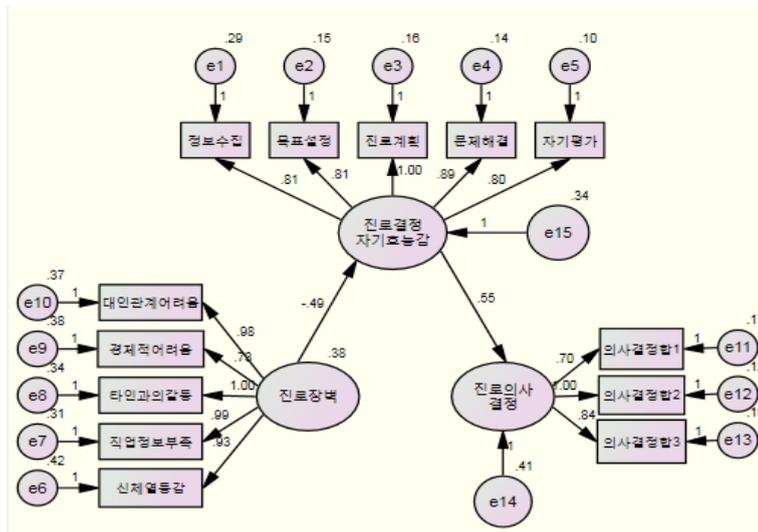
모형	X <sup>2</sup> (p)	df	RMSEA	RMR	GFI	NFI	TLI	CFI
진로장벽→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74	-.437	.086	-5.486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의사결정				.180	.160	.072	2.505	.012*
진로장벽→진로의사결정				-.853	-.700	.102	-8.327	***

\*p < .05, \*\*\*p < .001

경로 회귀계수 역시 진로장벽→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a = -.474$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의사결정  $\beta = .180$ , 진로장벽→진로의사결정  $\beta = -.853$ 으로 나타나 모두  $p < .001$ ,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청각장애청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각장애청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은 높아지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역시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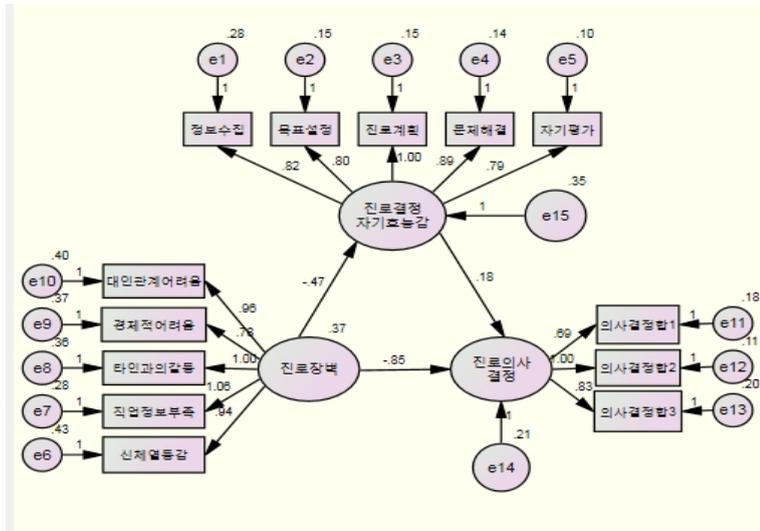
경로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소벨검증(sobel test)<sup>5)</sup>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진로장벽→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의사결정의 경로에서  $-2.28(p < .05)$ 로 유의미한 것으로 기준치 절대값 1.96 이상을 충족시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 1(완전매개모형)과 연구모형 2(부분매개모형)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완전매개모형(연구모형 1)

5) 소벨 검증 공식 =  $\frac{ab}{\sqrt{a^2 s_a^2 + b^2 s_b^2}}$



<그림 2>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 2)

## V. 결론 및 제언

### 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한 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는 첫째,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의사결정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이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교(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18~34세의 청각장애청년 222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과 AMOS 18.0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의사결정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는 경험적 검증 결과 지지를 받았다. 우선, 진로장벽→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beta = -0.474(p < 0.001)$ 로 강한 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각장애청년이 느끼는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은 더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은영, 2001; 손은령, 2001; 이희진·김금미, 2010; 이문정, 2013)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은 진로의사결정 시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이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클수록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문제해결능

력, 목표수립, 정보수집 등에 대한 능력이 떨어져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의사결정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beta=180(p<.05)$ 로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각장애청년이 느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 수준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친다는 선행 연구(이은경·이혜성, 2002; 정진선, 2002; 이명숙, 2003; 이진미, 2008; 강승희, 2010; Hackett and Betz, 1981; Tylor and Betz, 1983)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과 마찬가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은 진로의사결정 시 경합하게 되는 개인의 태도와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 개인이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직업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Tracey, 2010), 목표수립과 진로 계획 수립이 용이하게 되며(Rogers et al., 2008), 진로선택과정은 촉진된다(Lent et al., 2002).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요구되는 과업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적용하여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하는가?’는 경험적 검증 결과 지지를 받았다. 완전매개모형의 모형적합도는 수용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부분매개모형은  $X^2=127.194(p<0.001)$ , GFI=.918, NFI=.924, TLI=.949, CFI=.959, RMSEA=.069(.05-.08), RMR=.034(.05 이하)로 수용 가능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경로 회귀계수 역시 진로장벽→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a=-.474$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의사결정  $\beta=.180$ , 진로장벽→진로의사결정  $\beta=-.853$ 으로 나타나 모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성식, 2007; 김영경, 2008; 고미나, 2011; 박성실, 2012; 이문정, 2013; Luzzo and Jenkins, 1996; Lent et al., 2002)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각장애청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킨다고도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진로장벽의 수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낮아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간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를 통해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의사결정은 진로장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시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모형은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의사결정 구조모형을 파악하는데 기여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신념, 즉 자기효능감에 의해 결정되며(하동희, 2005)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접적인 접근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이를 통해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청각장애청년들의

진로상담 개입 시, 그들이 우선적으로 진로관련 문제 상황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방식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행동접근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낮춘다는 실증결과를 고려하여 청각장애청년의 진로장벽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장벽의 측정도구의 구성요인인 신체적 열등감, 대인관계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 부족 등 임을 감안할 때 청각장애청년 대상관련 프로그램 시행 시 세부목표로서 이 하위요인을 고려한 실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각장애청년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켜 긍정적인 대인관계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각장애청년들의 경우 전국단위의 대학생네트워크도 활성화 되어 있다. 이들이 진로를 잘 결정하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 또는 멘토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집단 프로그램에서는 청년들의 심리사회학적 발달의 주요 차원인 개인내적관리, 자아효능감, 대인관계 및 대화법 실습, 졸업 이후 직업적 실력을 쌓기 위한 유능감 회복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멘토링 서비스에서는 자신들과 비슷한 청소년기를 겪고 청각장애 성인으로 성장하여 성공적인 청각장애 역할 모델로서의 기능을 하는 멘토를 만남으로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축적해온 삶을 통해 비장애인과 원활이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기존의 청각장애를 생각하는 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제한에 따른 낮은 자아존중감, 외로움, 고립, 불안 등과 같은 위험요인들은 축소되고 높은 자아존중감, 정서적 안정감, 사회문제 해결능력 등의 보호요인이 촉진되어 청각장애청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낮추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박정현(2012)은 청력의 손상자체가 의사소통의 제한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기보다, 다양한 물리적·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청각장애청년 스스로가 장애를 극복하고자 훈련과 치료를 받으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를 경험하고 다시 의사소통제한을 경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청각장애청년이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등의 재활전문가 원조 및 주위의 협력적인 사람들과의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스스로 활용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청년은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학교에서 교육 및 대인관계 형성에서 많은 제한을 경험하므로 문자통역과 수화통역의 의사소통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청각장애청년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부서를 만들어 그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 중심의 서비스에서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문자통역, 속기와 같은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차후에는 이에 관한 법 규정을 개정하고 지원에 대한 별도예산 및 추가 인력을 증대하여 청각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논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가 자기보고식에 의존하고 있어서 결과에 주관적인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둘째, 청각장애청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이외에도 많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청각장애청년들의 개인적인 요인과 더불어 인지·행동·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한 요인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경로나 대안적인 경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로의사결정의 관계를 매개효과로 검증하였다. 향후에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조절변수로 설정하거나, 인구학적인 특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또 다른 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양적 분석 외에도 좀 더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승희(2010). 공학정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9(3), 291-307.
- 강원덕·안귀여루(2010). 경험논문 :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5(1), 161-175.
- 강희순(2010). 대학생의 성별, 학년, 진로의식이 진로개발 준비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9(3), 83-104.
- 고미나(2011). 대학생 내, 외적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청구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의사결정 상담의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교육과학기술부(2011).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 김경진(2004). 청각장애 대학생의 문화 실태 연구. **언어치료연구**, 13(4), 23-39.
- 김민정(2006).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봉환·이제경·유현실·황매향·공윤정·손진희·강혜영·김지현·유정이·임은미·손은령(2010). **진로상담이론 - 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서울 : 학지사.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청구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김영경(2008)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91-1210.
-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영(2000). 일반 청소년과 청각장애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비교연구. **교육심리연구**, 14(2), 115-141.
- 김중운·박성실(2012).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 효과. **직업교육연구**, 31(2), 23-43.
- 권순우·김병하(2004). 청각장애학생의 과정별 학교교육 상황에 대한 종단적 사례 연구. **언어치료연구**, 13(3), 93-121.
- 권선진(2006). 청각장애인의 직업적 차별실태와 정책적 함의. **장애와 고용**, 16(1), 93-114.
- 남진열(2010). 대학생의 개인적 직업 관련요인들과 취업준비실태의 관계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4), 353-375.
- 박미경·김영숙·이현림(2008). 여대생의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27(2), 1-20.
- 박민지(2010). 청각장애학생의 장애정체성과 직업선호도의 상관성 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 69-86.
- 박성실(2012).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미간행 박사학위청구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박정현(2012). 청각장애인 청년이 경험하는 비장애인과의 대인관계 형성과정과 관련한 연구 - 비가시적 장애,

- 의사소통 대처 전략, 장애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정희·김홍석(2009). 진로장애가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1), 125-144.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 배병렬(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 청람.
- 손은령(2001). 여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손은령·손진희(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송지준(2010).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 AMOS 통계분석방법**. 경기 : 21세기사.
- 엄미선·김진희(2010).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 영향 요인-장애정체감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219-242.
- 옥정달(2007). 청각장애인의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8(3), 367-382.
- 이건미(2008).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지도에 따른 진로의사결정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유형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규식·석동일(1997). **청각학**. 대구 : 대구대학교출판부.
- 이기학·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정도에 대한 예언변수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명숙(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 이문정(2013). 장애청년의 진로의사결정 모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성식(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연미(2002).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와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윤경(2010). 장애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의 영향요인.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이은경·이혜성(200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90-120.
- 이정애·최용용(2010). 대학생의 진로목표 추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구조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23(2), 101-121.
- 이진숙·최은영·문장원(201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청각장애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9(3), 601-618.
- 이현주(2007). 대학생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연구**, 8(2), 235-257.
- 이혜숙(2010). 청각장애 대학생의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13, 243-274.
- 이희정·김금미(2010).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2), 623-640.
- 장명희·유동철(2008).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보호요인과 학교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9, 113-137.
- 장창엽·이달엽·김학영·안태희·최진(2004).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정미예(2007). 대학생의 진로장애 지각, 진로신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발달의 구조적 분석. 미간행 박

- 사학위청구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정영해·강희순·김정숙(2012). 대학생의 취업준비여부 직업가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개발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22(1), 71-88.
- 정진선(2002).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효능감과 진로결정유형이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조명실(200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조지혜(2007).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육개발원(2011). **취업통계연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1). **장애인 통계**.
- 하동희(2005).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스트레스대처방식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청구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1), 161~177.
- 황보옥(2011). 여성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 H. Freeman & Company.
- Gushue, G. V. (2006). Self-efficacy, perceptions of barriers, vocational identity, and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Laine/a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4(3), 307-317.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2).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 D. Brown(Ed.),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255-311).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 Lindley, L. D. (2005). Perceived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 271-287.
- Luzzo, D. A., Jenkins, S. A. (1996). Perceived occupational barriers among Mex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TCA-Journal*, 24, 1-8.
- Nadya F., Elizabeth W. C., & Neeta K. (2009). The effectiveness of a career decision-making cours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3), 338-347.
- Nauta, M. M., & Kahn, J. H. (2007). Identity status, consistency and differentiation of interests,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55-65.
- Osipow, S. H., Carney, C., Winer, J., Yanico, B., & Koschier, M. (1987). *The Career Decision Scale* (rev.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Punch, R., Hyde, M., & Creed, P. A. (2004). Issues in the school to-work transition of hard of hearing adolescent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49, 28-38.
- Rogers, M. E., Creed, P. A., & Glendon, A. I. (2008). The role of personality in adolescent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1), 132-142.
- Sullivan, K. R., & Mahalik, J. R. (2000). Increasing career self-efficacy for women : Evaluation a group interven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1), 9-63.

- Swanson, J. L., & Gore, P. A. (2000). Advances in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and research.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 233 - 269). New York: Wiley.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racey, T. J. G. (2010). RIASEC interest and confidence cutoff scores : Implications for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2), 265-276.

Abstarct

---

##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of Young Adult with Hearing Impairments

Lee, Mun Joung(Daegu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a structural relationship exists among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of young adults with hearing impairment and propose a career decision making model by identifying a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making.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22 people who have graduated from or are attending at four-year universities across the nation. Instruments used in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career barriers scales, career decision making scale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s. An effect of mediating variable through Path analysis by appl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lso conducted. First, it is found that career barriers has negative direct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econd, it is found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has positive direct effect on career decision making. Finding also suggested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artially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barriers. Based on the finding, it is offer various career counseling programs about reduced career barriers and improv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r young adult with hearing impairment.

---

**Key Words** : young adult with hearing disabilities,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mak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

\* 이문정(제1저자, 교신저자) : 대구대학교 박사(aina62@naver.com)

투고일 : 2013. 6. 30 수정원고접수 : 2013. 8. 19. 게재확정일 : 2013. 8. 23.

